#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 지키자!

## 경남도교육청, 초·중·고, 유치원 미세먼지 담당자 1,200명 교육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학생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1일, 창신대학교 대강당에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담당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면서 특히, 생물학적 약자인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전체학교 미세먼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위해성과 담당자 역할 교육을 했다.

이날 미세먼지 교육은 미세먼지 개요와 향후 대응 방향, 미세먼지 대응 우수사례,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개정(안) 설명 등으로 이뤄졌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와 유치원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박종훈 교육감은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을 넘어 생명과 생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교육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교육감 주재로 미세먼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단설유치원에 측정기를 설치해 측정결과를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자료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고 학부모, 지역사회와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과 조기사망률 증가 원인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 "대한민국 해양주권 실현하자"

## 창원사파고, 동해 병기 백악관 청원 운동 동참

경남 창원사파고등학교(교장 송승환)는 지난 14일(금) 학생자치회 홈보부 '사파알리미' 학생들의 주최로 '동해 병기 백악관 청원 서명 운동 동참' 행사를 진행했다.

IHO(국제수로기구)는 지난 2012년 영국에서 열린 제18차 총회에서 기존의 부결방침 입장을 바꿔 처음으로 동해병기 채택을 위한 개정안 결정을 2017년 총회로 보류한 바 있으며, 현재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동해-동해와 일본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정책을 바꾸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사파알리미 학생들은 "의미 있는 운동에 많은 학생과 같이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교내 청원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급식소 앞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백악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서명에 참여하였으며 짧은 시간 동안 130여 명의 학생이 동참하였다. 이후에도 많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참여하여 교내 청원운동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행사를 주최한 사파알리미 차장 2학년 김창엽 학생은 "미국 내 대부분 교과서나 공문서에 현재까지 '일본해'를 지명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청원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송승환 교장은 "동해 병기는 독도 영유권과 연결되는 만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해양주권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는 학생들이 대견하다"고 말했다.

김호기 기자 khk@

# 몸으로 보여주는 나라사랑

## 진주 금호초, 독도 사랑 플래시몹

경남 진주 금호초등학교(교장 윤진란)는 지난 14일 전교생 1,030명이 운동장에 모인 가운데 독도 플래시몹 행사를 펼치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몸짓과 함성으로 강하게 전했다.

금호초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하는데 맞서기 위해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독도교육주간을 실시하여 교육청에서 배포된 독도 교재를 활용하여 독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독도를 지킨 33인 영웅들'의 영상을 시청하고 독도 만화 그리기, 독도 오행시 짓기 대회를 하는 등 학년별로 체험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독도플래시몹 행사는 일주일간의 독도교육주간 교육활동을 마무리하고자 다함께 모여 독도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독도는 우리땅을 부르며 다함께 동작을 하다 보니 진짜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전했다.

김호기 기자 khk@

# 한국나노마이스터고 개교 준비는?

## 밀양전자고, 김상권 교육국장 격려 방문

4월 14일 오전, 변화와 열정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밀양전자고등학교(교장 최영길)에 김상권 교육국장이 방문했다.

이번 방문행사는 지난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린 '2017. 경남기능경기대회'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학생들에 대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격려 물품 전달과 한국나노마이스터고 개교를 준비 중인 학교 현장의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상권 교육국장이 학생대표와 기능훈련 학생들에게 교육감 격려 물품을 전달하면서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리고 장운익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인재과 직업교육담당 장학사와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최영길 밀양전자고등학교장은 학교 현황 보고를 통해 2019년 3월 한국나노마이스터고 개교를 위한 준비사항 및 예산 확보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상권 교육국장은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나노융합분야 인력 양성을 전담할 나노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개교를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남도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호기 기자 khk@

## 경남교육연수원·하동야생차박물관 MOU 체결

### 업무협약 통해 전통차 문화 체험 힐링休연수 운영

4월 20일 경상남도교육연수원(원장 곽동국)은 하동군(군수 윤상기)과 하동군청에서 교육훈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경남도교육연수원에서 강조해온 지역문화와 함께 살아 숨쉬는 현장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동군은 하동야생차박물관에서 개발·운영 중인 각종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차 시배지이자 전통차 문화가 집적된 하동지역의 문화를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하동군 관계자에 따르면 살아 숨쉬는 지역문화를 교육현장에 접목시키려는 도 교육연수원의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곽동국 교육연수원장은 "전통차 문화 계승과 확산을 위한 하동군의 지역문화 홍보에 대한 열정과 경상남도교육연수원의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열정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상호 우호적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교원 및 지방공무원이 다양한 지역문화 체험으로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연수원은 이번 협약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힐링休과정(4.20.~4.21.(1기), 4.27.~4.28.(2기))을 하동지역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마산도서관, 독서동아리 이야기 꽃을 피우다

### 계층별 독서동아리 운영

마산도서관(관장 전석자)은 올 3월부터 '계층별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 월 정해진 책을 읽고 활발한 독서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계층별 독서동아리는 글소리(초등 4~5학년), 온누리(중등 1~3학년), 하나리(고등 1~2학년), 샘물(주부), 울림(직장인), 책과동(학교사서), 은빛행복(실버)등 총 7개 독서동아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월1회 이상 정기모임을 통해 작가연구, 독서토론, 독서체험활동, 문학기행, 영화감상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글소리(초등), 온누리(중등), 하나리(고등), 은빛행복(실버) 독서회는 독서지도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독서토론 및 독후활동의 질의 높이고, 독서동아리의 내실을 다지며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에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인근 산호공원 및 야외에서 독서토론을 통해 회원들 간의 친목도 다지며, 책을 매개로 다양한 이야기 꽃을 피워 낼 예정이다.

독서회 담당자는 "'계층별 독서동아리'를 통해 지역민들이 책과 함께 소통하며, 건전한 독서토론 문화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